

## 서로 격려하며

**핵심 구절:**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도록 서로를 돌아봅시다.”

**히브리서 10:24**

**선별된 성경 구절:**

**히브리서 10:22-25**

보통 “격려하다”라는 단어는 분노나 악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는 이 단어를 선한 일을 하도록 독려하고, 사랑과 선한 행실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구절의 또 다른 번역은 “서로 동기를 부여하다”입니다.

서로 사랑과 선한 행실, 즉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일 때의 진정한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진 이들과의 교제에서 오는 도움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도는 또한 “그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 때” 형제들과의 교제가 점점 더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25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향해 올바르게 격려하기 위해, 사도는 우리가 먼저 “서로 돌보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시련과 어려움, 약점을 고려하여 그들에 대한 마음의 동정을 키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서로 격려하라”는 이 권면에는 아름다운 영적 균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선한 일을 향한 열정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로 드러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비롯되거나 그 표현이 아닌 행실은 주님의 눈에는 선한 행실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은 사도 바울에 의해 다른 곳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묘사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3). 이는 참된 사랑이 “수고”하거나 일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사랑은 단지 친절한 성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사랑의 행위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데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을 채우고 지배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즉 타락한

인류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소유하시고 본보기를 보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신, 곧 독생자이시며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16).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과 선한 행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본을 봅니다. 물론 우리는 구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 정신을 기르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교제”로 번역된 그리스어 “*코이노니아(koinonia)*”는 “*동역*”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9; 빌립보서 1:5; 요한일서 1:6,7). 기독교적 교제는 단순히 함께 모여 공통된 신앙을 논의하는 것 이상입니다. 서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은, 죄로 저주받은 인류의 세상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그분과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17-21; 6:1

바울은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사역을 강조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맡기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고린도후서 5:19,20). 이는 우리가 죽기까지 신실하다면, 우리 머리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잃어버린 인류를 하나님께로 화해시키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가 동참하는 공동의 사역입니다. 이 대의와 관련하여 서로를 신실함으로 “격려”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